

마태복음 7:1-12

1.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7:1-6

1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2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3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줄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5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 줄 수 있을 것이다."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 ㄱ.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1-2 절):
 마태복음 6 장 12 절, 14-15 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서로 용서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 ㄴ. 자신의 죄는 정당화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 강조하고 고치려는 사람은 눈먼 사람입니다 (3-5 절): 예수님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 때문에 잘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들보는 지붕을 받치기 위해 두 기둥을 가로 질러 엮은 나무입니다). 로마서 2:1-3 절에서도 이중 잣대로 나와 남을 다르게 심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 ㄷ. 6 절은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앞에 나온 1-5 절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고, 뒤에 나오는 12 절에서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말씀 사이에 놓여 있는 6 절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9 에서도 지혜의 가르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귀한 것을 나누기 어렵다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가 너의 슬기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2.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7:7-11

7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8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9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10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 ㄱ. 7-10 절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11, 32-34 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 ㄴ. 11 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악한 사람이더라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간구할 때 그러한 아버지께 나아가 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가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3.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7:12

12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12 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을 요약하는 가장 기본 되는 하나의 정신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37-40 절에서 예수님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는 두 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요한도 요한복음 13:34-35 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로마서 13: 10, 갈라디아서 5:14, 6:2, 야고보서 2:8